

Sermon 28 August 2016
Jeremiah 2:4-13, Luke 14:1, 7-14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시드니를 떠나서 다시 돌아 온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국이라고 불리어 지는 곳인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며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며 많은 아름다운 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LUC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한가지 꼭 인식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오트밀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샐러 방법이 있는지요! 심지어 수도꼭지들도요! 저는 저녁식사를 오후 5:30 에서 9 시가 지나서 까지 언제든지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는 내 자신이 생각 하는 것 만이 “정상”이 아니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아이오나(Iona)까지, 아우터 해브리디스에 있는 루이스섬까지, 그것은 서해안쪽으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글래스고와 애린버러 그리고 런던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장소까지. 그 많은 다양한 나라 가운데 어떻게

“정상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다르다고 보기가 쉬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이오나에서 제가 머무르고 있던 농장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길 가에는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다 그리고 언덕 위는 아침햇살을 받아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아이오나 수도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배에서 내려 수도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객이었습니다. 저의 반응은 “이건 아니야, 나의 평화와 여유는 방해 받았어”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온 각각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것 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치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린 손안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저기에 있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평범합니다”. 아마 우리는 다 “웁습니다”.

그리고 또 3 주전 주일날 아침 저는 루이스 서해안쪽에 있는, 칼로웨이 근처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교회로 저의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의 예배는 여기 예배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확실히

45 분의 설교는 예배의 클라이막스였고 시편 찬양 후 시작되었고, 한 분만이 하시는 아주 긴 즉흥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예배를 비평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지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예배는 스코틀랜드의 게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들 자신문화 예배입니다, 게일 문화는 아직까지도 주일이 안식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입니다, 주일 날은 어느 누구도 빨래를 빨래 줄에 던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가게 문도 열지 않으며 단지 최근에 페리(배)만 주일날 움직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했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큰 탁자 주위에 모여서 차를 마시는 것에서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행기가 아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사실 누가복음은 저의 생각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은 누가의 복음서에 대한 이해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여성의 이야기, 가난한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다루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암시들을 읽을 것 인지 요청 하신 것, 그들 자신의 전통적 견해들을 넘어서 보는 것 들이 엄격한 법 보다 도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더 만나게 됩니다. 식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들의 문화에 따르는, 우리 자신의 가족들과,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따르는, 자신들만의 식탁 관습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여행 가운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신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잔칫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A”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들은 것 같이 여러분이 어디에 앉느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그때 그리스로마 시대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큰 행사에 가서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체크해야 하는 큰 식당에 가보신적이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구석 모퉁이 자리에 앉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식당의 앞쪽 자리를 차지한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는, 손님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명예는 그리스 로마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가치를 둡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더 많은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비천하게도 만들 뿐 아니라 점점 더 높게 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들이 왜 그들 자신들을 좋은 위치로 옮기려고 하는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예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안이 얼마나 급진적인 것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더 두드러져 보여서 식탁을 옮겨 다닌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어디에 자리를 차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성경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과 18년 동안 등 굽은 여인을 안식일 날 고치신 것이 어떻게 진정 옳은 일인지를 보여주시고 바리세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의 강한 전통적인 관점은 만약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관점인지 인간적인 것인지를 알아 보는것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식탁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여인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움으로 그 여인이 주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강하고 깊은 자유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 공동체에 기초가 됩니다. 여기, 종교적인 엄격함이 사람들을 특정한 하나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잃어 버리는 위험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우리모두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안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들의 삶에 대한 신뢰에 관해서, 무슨 일이 일어 나든지 그의 방법들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옳고/그리고, 선/악, 검정색/흰색 단지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종종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과 옳음으로부터 한걸음 물러나 생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종종 직관에 반대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물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사실과 대답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종종 만난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확립된 사고 방식을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확신을 강하게 가지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 쉽게도 우리들은 하나님 보다는 인간들과 능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멈추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판단인 종교 안에서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멈추고 다른 제 3의 방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지금 저는 물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방식에 반대하는 확실히 틀린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 등 위선자들에 대항해서는 문책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찌면 그들 자신의 태도들이 옳은 것 이라기 보다 나쁜 것 이라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이전에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을 대적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시 당하고 또는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귀신들린 젊은 남자, 문둥병환자, 세리들 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신 것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규칙들과 전통의 확고한 사실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전은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에 관한 것 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확신성과는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아마 우리는 이 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안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스코트랜드로 긴 여행을 떠났을 때 아주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방식에 대면 하였을 때, 저의 생각을 판단의 자세에서 내려놓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다 내려 놓았을 그때 저는 제가 했던 생각들이 더 큰 영역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부자이웃들을 그들의 잔치에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또 우리를 초대하고 응답하고 그것은 끊임 없는 순환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사고에 진정한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자, 절름발이, 눈 먼 자, 전혀 명예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초청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터무니 없으신 제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쩌면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명예로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심지어 우리와 어울리는가 하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경, 신분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동등하고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여기 LUC,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기를 바라는 이 공동체로

돌아오니 행복합니다. Dr. 마틴 루터 킹이 이야기 하셨던 “우리의 목적은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적인 변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